



유가전망

2002년 국제유가 전망

- 한국석유공사 -

I. 2002년 국제 석유시황 전망

1. 개 황

2002년 국제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 들로는 ①석유수요(경제여건) ②석유공급(OPEC 생산정책, 이라크 석유생산 및 수출, 비OPEC 생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 주요 석유시장 변수 검토

가. 석유수요

2002년의 세계석유수요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여건에 크게 영향받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근래에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미국을 필두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하반기이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2년 세계석유수요 또한 이러한 경제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거의 정체를 보인 2001년 보다는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세계경제 여건

2002년 세계경제는 금년보다는 다소 호전되어 2~3% 내외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는 지난 9월 미국 테러사건 발생이후 미국을 선두로 하여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유가하향 안정 및 그밖에 경기침체를 가져온 요인들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경기침체를 유발시킬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하고있어 본격적인 경기 상승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내년도 경제는 작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지만 여전히 1~2%의 저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경우 월가에서는 내년 초부터 강한 경기 회복을 예상하는 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 경제가 V자형 보다는 U자형의 완만한 경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

· V자형 회복을 막는 요소로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증가,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 추가 테러 위협 및 전쟁의 불확실성 등이 있음

- 특히,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일본은 2002년에도 1% 이상의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곤란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2001년에 이어 상대적으로 4~5%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중국과 인도는 5~7%의 성장으로 세계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2002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구 분	2000	2001		2002	
		IMF	WORLD BANK	IMF	WORLD BANK
전세계	4.7	2.6	1.3	3.5	1.6
선진국	3.8	1.3	0.9	2.1	1.1
미 국	4.1	1.3	1.1	2.2	1.0
일 본	1.5	-0.5	-0.8	0.2	0.1
E U	3.4	1.8	1.5	2.2	1.3
개발도상국가	5.8	4.3	2.9	5.3	3.7

*2000년 실적치는 IMF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1. 10)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2002 (2001. 10)

■ 세계석유수요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세계 유수 석유 시장 분석기관들에 의하면 2002년 세계 석유 수요는 세계경제가 금년도 최악의 사태를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됨에따라 20~70만b/d 정도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IEA는 2002년 세계석유수요는 7,660만b/d로 금년(7,600만b/d)대비 약 60만b/d(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금년의 증가폭(10만b/d)보다 상당히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 美 에너지안보연구소(ESAI)도 내년 세계석유수요는 금년(7,620만b/d)대비 70만b/d 증가할(7,690만b/d) 것으로 예상하여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

- 그러나, 美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는 2002년 수요가 금년(7,650만b/d)대비 20만b/d 가량 증가한 7,670만b/d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여 가장 보수적인 입장 견지

2002년 세계석유수요 전망

(단위 : 백만b/d)

구분	2001	2002	증감
IEA	76.0	76.6	0.6
ESAI	76.2	76.9	0.7
CERA	76.5	76.7	0.2

나. 석유공급

내년에도 세계석유공급은 OPEC의 생산정책이 가장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OPEC의 시장 점유율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를 회복하려는 OPEC의 노력이 얼마나 과실을 거둘지가 주목되는 한 해가 될 것임. 특히, 러시아는 2002년에도 금년에 이어 약 40~50만b/d의 증산이 예상됨에 따라 총 생산규모는 사우디에 버금가는 750만 b/d로 국제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맞는 역할의 증대를 추구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이외에도 이라크의 석유수출 외교정책 추이 및 금년도 대규모 감산에 따른 석유재고 변화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OPEC 생산정책

○ 98년 10월 근처까지 유가 폭락을 경험한 OPEC은 회원국간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시의적절한 생산정책을 추진

- 금년 OPEC은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 전망에 대응하여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9월까지 3번에 걸쳐 총 350만b/d를 감산하여 목표유가인 25불대 방어에 성공

○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 발생 후 석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하고 주요 비OPEC국가들이 OPEC의 감산정책에 협조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내 생산쿼터 준수율이 떨어

어지자 시장에서는 OPEC의 시장조절 능력에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

- 또한, 지난 3월이후 OPEC의 주요 생산정책의 하나로 인식되던 유가밴드제 적용을 스스로 유보함으로써 역량부재를 자인한 결과 초래

· 지난 10월 국제유가는 유가밴드 하한선인 22불 아래에서 20일동안 유지됨으로써 50만b/d 자동감산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당시의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OPEC은 세계경제 여건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감산을 단행하지 않음

· 이와같은 유가밴드제 실행의 사실상의 포기 배경에는 당시 이미 OPEC이 시장점유율을 비OPEC에 빼앗겨 추가감산시 시장주도력 상실 우려되었으며 생산쿼터 준수에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

○ OPEC의 새로운 목표가격 설정 노력 전개

- OPEC은 아직도 목표유가로 25불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준유가인 OPEC바스켓 유가가 지난 9월 하순이후 두 달 넘게 20불을 하회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유가 약세가 전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목표가격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새로운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20~22불대가 가장 현실성 있는 제안으로 판단됨

○ 지난 11월 OPEC총회에서 결정된 200만b/d 감산(비OPEC포함)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면 금년 2월 이후 감산 물량은 총 550만b/d에 달해 내년 상반기 이후 석유회사들의 재고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장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분석됨

- 금년 들어 4분기 이후 유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감 이외에 2000년 OPEC의 총 4차례의 증산(총 370여만b/d)을 단행한 효과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기 회복으로 석유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이후 겨울철 성수기를 대비한 석유회사들의 재고확보 경쟁까지 가세될 경우 국제유가는 3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임

○ 이와같은 맥락에서 OPEC의 생산정책은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석유의존적인 경제여건을 감안시 금년 이후 OPEC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감산을 한 상태이지만 본격적인 유가의 상승 국면에 돌입하였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설불리 증산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임

- 2002년 상반기까지는 OPEC은 생산쿼터 준수 독려를 통해 회원국들의 결속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하반기이후 석유 수요의 회복세가 나타

나고 석유수급이 타이트해져 시장에 추가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OPEC이 목표유가를 방어할 자신이 생길 경우 증산 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라크 석유수출

미국의 對이라크 정책에 있어 석유수출프로그램의 새로운 방안이 기존의 무기사찰을 대신할 만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음. 즉, UN의 이라크 무기사찰의 경우 이라크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며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무기사찰이 중단된지 3년이 지난 오늘날 더 이상 유용한 이라크 제재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넣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이라크의 중요 통제수단으로 무기사찰의 부활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반면에 미국을 포함한 UN에게 있어 Smart Sanctions은 이라크의 협조 없이도 이라크 석유 판매수입을 통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UN은 석유수출프로그램을 통해 이라크의 석유판매대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이라크의 무기구입 및 개발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됨. 즉, 이라크의 주변국과의 석유 밀거래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석유판매대금 사용 방지를 위해 Smart Sanction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임. 한편, 최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무기사찰 수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이라크 문제는 미국의 대테러전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다루어 질 것임

○ 2002년에도 여전히 이라크 문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약 200만b/d에 해당하는 이라크 석유수출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질 경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며 다만 그 영향의 강도는 이라크 물량을 빠른 시일내에 대체가 가능한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함

○ 11월 30일 10차 석유수출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앞두고 시장은 11월하순 이후 혼란이 야기되는 듯 하였으나 미국과 러시아는 6개월 연장에 합의

-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대신 향후 6개월 이내에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합의

- 러시아는 내년 5월 30일(11차 프로그램 종료일) 까지 이라크에 수입되기전에 UN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새로운 상품검토목록(goods review list) 작성에 동의할 것을 합의

· 이 상품 검토목록에 포함되는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별도 허용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임. 반면에 민수용 물품에 대해서는 동 절차가 필요없음

○ 이라크도 지난 12월 1일(토) UN이 결의한 석유

수출프로그램(oil-for-food program)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정부의 성명문을 통해 밝힘

- 이라크의 외무장관 Naji Sabri는 외신기자들에게 이라크는 UN의 11번째 석유수출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이라크는 이번에 UN이 의결한 내용중 상품검토목록의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11차 석유수출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내년 5월에는 다시 한번 석유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관련하여 Sabri 장관은 1996년 이라크가 UN과 합의한 최초의 내용이외에 그 어떤 수정 사항도 이라크 정부는 향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향후 이라크의 문제의 향방은 당사국인 이라크의 의지보다는 미국과 러시아간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일단, 이번 프로그램을 연장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내년 6월 이전까지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라크의 선택 범위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임

- 러시아가 지난 6월 Smart Sanction 실행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는 않고 있으나 이라크와의 경제적 관계가 그 중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음

- 즉, 최근 수년간 러시아는 무기판매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라크를 지원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라크가 러시아에게 채무를 갚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미국은 러시아가 이라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일부 포기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 이러한 움직임 중 하나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미국이 도움을 주는 것임
- 한편, 이라크 문제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임
 - 이라크는 지난 9월 테러사건 또는 탄저균 유폐 대상국으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공격 대상국 1호로 분류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는 이라크 문제는 불확실성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석유수급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2002년 하반기에는 이라크의 문제가 더욱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 내년 5월말 11차 석유수출프로그램 종료로 앞두고 새로운 이라크 제재방안(상품검토목록 등) 적용을 놓고 UN을 대표한 미국과 이라크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비OPEC 증산 규모

기본적으로 비OPEC의 석유공급은 OPEC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매장량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어 비OPEC의 역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임.

그런데 회원국별로 생산쿼터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OPEC과는 다르게 비 OPEC의 경우 개별 생산량을 규제하는 특별한 장치는 없음. 다만, 평상시에는 국제유가 또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규모를 결정하되 특별한 시장 상황이 전개되어 국제석유시장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OPEC이 협조를 구할 경우 외교적 산물의 일환으로 생산량을 스스로 통제하여 왔음.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비OPEC의 생산량이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는 것이며 특히, 2001년에 들어와서 OPEC은 대규모 감산을 거듭한 반면 비OPEC은 생산량을 꾸준히 증가시켜 국제석유수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 유가의 하락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은 소비국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짐. 이와같은 비OPEC의 노력에 힘입은 유가 하락은 침체일로에 있는 세계 경제 회복의 주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음. 그러나 생산정책에 있어 OPEC에 비해 탄력성이 부족한 비OPEC의 경우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2002년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한 역할에도 한계가 노출될 것으로 보임

- 98년 유가폭락에 따른 투자부진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99년 10만b/d 감소에 그친 비OPEC국가의 원유 공급은 2000년 이후 고유가에 영향을 받아 증가세로 전환
 - 2001년 비OPEC의 공급량은 전년대비 60만 b/d 증가한 4,650만b/d로 추정되며 이러한 증가세는 전년대비 감소세(50만b/d)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OPEC과는 대조적임
 - 국가별로 살펴보면, 주요 비OPEC국가들 중 러시아의 성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는데 10월 현재 생산량은 715만b/d로 작년 동기간대비 무려 52만b/d 증가하였음
 - 그밖에 멕시코의 생산량도 318만b/d로 전년대비 32만b/d 증가하는 등 러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3개국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98만b/d 증가하였음

주요 비OPEC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 추이

(단위 : 백만b/d)

구 분	2000.10 (A)	2001.1	2001.6	2001.8	2001.9	2001.10 (B)	증감 (B-A)
러시아	6.63	6.61	6.99	7.10	7.16	7.15	0.52
노르웨이	3.26	3.36	3.05	3.00	3.25	3.40	0.14
멕시코	2.86	3.09	3.14	3.18	3.18	3.18	0.32

* 자료 : Petroleum Argus, Fundamentals(2001.11)

- 2002년에도 비OPEC은 러시아를 선두로 하여 공격적인 증산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이와 관련 IEA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비OPEC의 증산규모는 금년도의 증산추정치(60여만b/d)를 훨씬 초과하는 약 100만b/d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IEA는 2002년 비OPEC 증산규모가 90만 b/d에 달할 것(4,740만b/d)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CERA, ESAI도 내년 비OPEC의 증산규모를 각각 4,690만b/d, 4,680만b/d로 2001년대비 100만b/d, 90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02년 비OPEC 석유공급 전망

(단위 : 백만b/d)

구 분	2001(A)	2002(B)	증감(B-A)
IEA	46.5	47.4	0.9
CERA	45.9	46.9	1.0
ESAI	45.9	46.8	0.9

- 이와같이 100만b/d에 육박하는 비OPEC의 증산은 금년도 OPEC의 과다한 감산으로 석유수급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에 그나마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비OPEC의 잉여생산능력은 OPEC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완화를 위한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OPEC의 견제세력으로서 구소련연방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소련은 1980년대 최대의 석유생산국가로 12백만b/d를 생산하여 8백만b/d를 소비하고 4백만b/d를 수출 	<p>고해져 현재 생산량은 8.7백만b/d, 소비는 약 3.6백만b/d로 알려지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초 소련 연방해체 및 사회적 변화로 90년대 중반에 가서는 원유생산은 7백만b/d, 소비는 4백만b/d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수출인데 FSU는 1996년 2.7백만b/d에 머무르던 것이 현재는 거의 5백만b/d에 육박하고 있어 생산 증가보다 월등한 수출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러시아 석유회사들은 국내에서는 석유판매대금을 받기 곤란하여 해외수출에 노력을 기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생산국들의 관심은 FSU가 얼마나 원유를 수출하느냐에 모아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말 국제유가 상승으로 러시아 석유산업은 수입 증가 및 도약의 기회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U는 매장량 관리기법의 발달과 소규모 유전의 활발한 개발에 힘입어 오히려 매장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소련연방(FSU)의 석유생산은 2000년 5%(430천b/d) 증가, 2001년 7%(610천b/d)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U의 원유 생산량은 2005년까지 약 9백만 b/d에 이를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으로 FSU의 원유 생산기반은 더욱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FSU는 OPEC을 견제하는 유력한 세력으로 남을 전망

II. 2002년 석유수급 및 유가 전망

1. 석유수급 전망

<p>기본적으로 세계 석유수급은 OPEC의 생산정책에 의하여 좌우되는 구조를 지님. 왜냐하면 비 OPEC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OPEC에 비</p>	<p>해 잉여생산능력이 적으며 각국의 생산량을 통제하는 기구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움</p>
--	--

2002년 세계석유수급도 예외는 아니어서 OPEC의 생산정책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OPEC은 유가 하락 방지를 위하여 2001년에 충분한 규모의 감산을 해 둔 상태이므로 1월 150만b/d 조건부 감산을 제외하고는 2002년에 추가로 감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6월이후 이라크 석유수출 중단 가능성,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석유수요의 증가로 인한 석유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증산이 더욱 필요할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2002년 1월부터 OPEC과 비OPEC이 200만b/d 감산을 시행할 경우 2002년에는 50만b/d의 석유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감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수급상 OPEC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내년도 국제유가는 하반기이후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OPEC은 내년 3분기 이후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산으로 생산정책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수요

- 2002년 세계 석유수요는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라 20~70만b/d 정도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 IEA는 2002년 세계석유수요는 7,660만b/d로 금년(7,600만b/d)대비 약 60만b/d(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ISA도 내년 세계석유수요는 금년(7,620만b/d)대비 70만b/d 증가할(7,690만b/d) 것으로 예상
- 반면, CERA는 2002년 수요가 금년(7,650만b/d)대비 20만b/d 가량 증가한 7,670만b/d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공급

- 2001년 비OPEC 권에서는 대체적으로 금년대비 90~100만b/d 가량의 증산이 예상됨
- 상기 증산 예상물량 중 구 소련방 지역에서 40~50만b/d, 아프리카 등 개도국권에서 20~30만b/d, 기타 10~20만b/d 가량 발생할 전망이다
- IEA는 2002년 비OPEC 증산규모가 90만b/d에 달할 것(4,740만b/d)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CERA, EISA도 내년 비OPEC의 생산규모를 각각 4,690만b/d, 4,680만b/d로 2001년대비 100만b/d, 90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OPEC의 2002년 생산수준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생산정책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OPEC 생산전망과 달리 시나리오별 전망이 필요

- OPEC는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생산 정책을 최초로 결정 예정

- 물론,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OPEC은 3월 총회시 생산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7월이전에 OPEC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3분기이후를 대비하여 증산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그들이 바라는 일정 수준만 유지된다면 증산을 결정하는 것이 수입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2001년 이후 대규모 감산에 따른 수입감소를 만회하려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3분기 이후 OPEC의 생산정책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수요의 증가 속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4분기 성수기를 대비한 석유회사들의 재고 확보 노력도 OPEC의 증산 배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분석됨

- 결과적으로 2002년 OPEC은 1월감산을 실시한다면 그 후 증산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며 원유생산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중 (II)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제한함

○ 3분기이후 석유수요 증가에 따른 OPEC의 증산을 전제로 할 경우 2002년도 석유수급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OPEC의 증산이 없을 경우 60만b/d의 공급부족 예상

2001년 OPEC 원유생산 시나리오

시나리오	생산쿼터	비고
150만b/d 감산(I)	2,170만b/d	2001년 11월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 1월 감산 실시
현행쿼터 유지(II)	2,320만b/d	1월감산 결정후 증산 또는 비OPEC과의 공조실패로 인한 쿼터 유지 등 2가지 시나리오 가능
150만b/d 증산(III)	2,470만b/d	수급 안정을 위하여 3분기이후 증산

주) 2001년 12월 생산쿼터(이라크 제외 10개국)는 2,320만b/d 기준

세계 석유수급 전망(IEA 기준)

(단위 : 백만b/d)

구분	2001 (A)	2002					증감 (B-A)	
		1/4	2/4	3/4	4/4	평균(B)		
수요	OECD	47.6	48.1	46.2	47.8	48.9	47.7	0.1
	비OECD	28.4	28.5	28.9	28.7	29.2	28.8	0.4
	계	76.0	76.6	75.1	76.5	78.1	76.6	0.6
공급	비OPEC	46.5	47.7	47.2	47.2	47.7	47.4	0.9
	OPEC NGL	3.0	3.2	3.2	3.2	3.2	3.2	0.2
	OPEC* 원유생산	27.4	25.4	25.4	25.4	25.4	25.4(I)	-2.0
			25.4	25.4	26.4	26.4	25.9(II)	-1.5
공급계	76.9	76.3	75.8	75.8	76.3	76.0(1)	-0.9	
		76.3	75.8	76.8	77.3	76.5(II)	-0.4	
공급과부족	+0.9	-0.3	+0.7	-0.7	-1.8	-0.6(I)		
		-0.3	+0.7	+0.3	-0.8	-0.1(II)		

주1) 2002년 수요 및 비OPEC 공급은 IEA 자료

주2) 2002년 OPEC 공급은 공사 추정수치임 : 1월 150만b/d 감산결정 전제

* CASE I : 생산쿼터 + 100만b/d + 270만b/d(이라크)

**CASE II : 1~2분기 상동, 3분기이후 100만b/d 증산

2. 국제유가 전망

2000년 하반기 이후 유가 강세를 보이면서 더욱 결속력이 강해진 OPEC은 2001년 4분기 이후 석유수요감소와 대규모 감산에 따른 충격을 이겨 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일부 상실한 것처럼 보임. 특히, 지난 11월 총회에서 단독감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을 OPEC의 자신감 상실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세계 석유공급의 40%를 점하고 있는 최대의 이익집단인 OPEC은 아직 견재하며 그들의 생산정책은 2002년도 유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 지난 11월 총회에서 의결된 150만b/d 추가감산이 비OPEC의 협조로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2001년 2월이후 OPEC은 500만b/d라는 엄청난

물량의 감산을 단행한 결과가 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OPEC 회원국들간에 생산쿼터의 준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면 세계석유수급은 매우 타이 트한 상황에 이르고 유가도 내년에는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시기적으로 국제유가는 감산의 효과가 가중되고 세계 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다른 한편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시 OPEC의 증산 여부, 규모 및 시기에 따라 유가는 상당한 변화를 보일 전망 그밖에 이라크 석유수출 중단 재발 가능성, 석유회사들의 재고전략, 증동 정세, 날씨 추이 및 국제투기자금 움직임 등도 유가향방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2002년 국제유가 전망(Dubai 기준)

(단위 : \$/bbl)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평 균	주 요 정 책
고유가	18~20	22~24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C 1.5백만 b/d 감산 ◇ OPEC의 높은 쿼터준수 ◇ 석유수요 조기회복 ◇ 이라크 석유수출 차질 ◇ 비OPEC과 원활한 협조 ◇ 재고부족 우려감 증폭
기준유가	16~18	20~22	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C 현행쿼터 유지 ◇ 석유수요 점진적 회복 ◇ 석유수급 균형 유지 ◇ 비OPEC의 견실한 증산
저유가	14~16	18~20	1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C의 낮은 쿼터준수 ◇ 석유수요 회복 지체 ◇ 정상적인 이라크 석유수출 ◇ 비OPEC과의 공조관계 차질

◇ 상기 시나리오를 종합시 2002년 국제유가는 연평균 \$19/bbl(두바이 기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

타기관 2002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bbl)

기 관	전망시점	기준유종	2001년	2002년					비 고
				1/4	2/4	3/4	4/4	평균	
CERA	2001.11월	Dubai	22.71	18.25	15.75	17.75	18.25	17.50	
		Brent	24.42	19.50	17.00	19.00	19.50	18.75	
		WTI	25.95	21.00	18.50	20.50	21.00	20.25	
CGES	2001.11월	Brent(D)	24.50	17.10 21.40	17.30 26.00	18.00 29.90	20.20 29.80	18.10 26.80	-현행쿼터유지 -200만b/d감산
ESAI	2001.10월	Dubai	20.52(4분기)	16.98	18.77	19.08	19.12	18.49	
		Brent(D)	21.98(4분기)	18.60	20.32	20.70	20.49	20.03	
		WTI	23.08(4분기)	19.90	21.90	22.03	21.83	21.42	
EIA	2001.12월	정유업체 도입단가	21.98	17.00	18.67	19.00	20.00	18.69	
		WTI	25.87	20.24	21.78	22.07	23.06	21.79	

주)CERA: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CGES: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연구소(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ESAI: 美 에너지안보연구소(Energy Security Analysis, Inc)

EIA: 美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OPEC 회원국별 생산쿼터 및 생산능력 현황

(단위 : 백만b/d)

국 가	10월생산(A)	생산쿼터	생산능력(B)	증산여력(B-A)
알제리	0.81	0.741	0.95	0.14
인도네시아	1.18	1.203	1.25	0.07
이 란	3.56	3.406	3.90	0.34
쿠웨이트	1.95	1.861	2.50	0.55
리비아	1.31	1.242	1.45	0.14
나이지리아	2.17	1.911	2.20	0.03
카타르	0.64	0.601	0.75	0.11
사우디	7.67	7.541	10.50	2.83

국 가	10월생산(A)	생산쿼터	생산능력(B)	증산여력(B-A)
UAE	2.04	2.025	2.50	0.46
베네수엘라	2.79	2.670	3.15	0.36
계(이라크제외)	24.12	23.201	29.15	5.03
이라크	2.85		2.80	
OPEC총계	26.96		31.95	

*출처 :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2001. 11)

** 생산능력 : 3개월이내에 생산가능하고 6개월 이상 지속가능한 생산 수준